



전국도서관 책임자와 업계 담당자 '만남의 장' 마련

도서관 관계자 450여명 참석 '성황' ... 2003년 디지털도서관 구축방향 제시

제5회 디지털도서관컨퍼런스 및 전시회가 지난달 7일 전국 도서관 및 업계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KDPC), 전자신문 등이 주최한 이번 디지털도서관컨퍼런스 및 전시회는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운영'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6일에서 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과 대서양관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국 도서관 관장(책임자)들이 200명이나 참석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디지털도서관컨퍼런스 및 전시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취재 신중훈 기자

디지털도서관이란 전자도서관, 가상도서관 등을 일컫는 말로써 전통적인 도서관의 각종 정보 및 서비스 등을 디지털화한 가상의 도서관을 구축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제5회 디지털도서관컨퍼런스 및 전시회에서는 M-라이브러리 구현을 위한 모바일 기술을 비롯해 해외 디지털콘텐츠 공동구매를 위한 e-마켓플레이스 모형,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방법 등이 발표됐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서관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함으로써 구매자와 공급자가 한데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체들은 자사의 신제품 및 솔루션을 알리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고, 도서관 책임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한 것.

디지털자료실 구축방향 등 관심 모아

이번 컨퍼런스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세미나는 웹스에서 발표한 '2001/2002년도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 사례 및 디지털자료실의 향후 구축 방향'에 대한 것으로 이날 발표를 맡았던 김용환씨는 "전국적으로 디지털자료실을 갖춘 도서관이 2001년 42개, 2002년 92개 등 134개에 이른다"고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디지털자료실의 구축방향은 관리자가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둘째날 진행된 'M-도서관 구현을 위한 모바일 기술 현황 및 적용방안'에 대한 세미나 역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발표를 진행한 신텔정보통신의 김성민 과장은 "도서관 전산화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전자도서관에서 시작해 디지털도서관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가상도서관과 모바일 도서관으로 발전하게 된다"며 "유선인터넷 시스템의 경우 PC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장소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모바일 도서관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된 전시회에서는 8개 업체들이 참가해 각 사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시스템 및 솔루션들을 선보였다. 소프트엑스포와 함께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디지털라이브러리솔루션과 전자퍼블리케이션스, 전자북 등 관련 솔루션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